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엠바고 :

즉시 보도 가능

배포 : 2023년 9월 10일(일)

## 윤석열 대통령, G20 정상회의 계기

### 모리셔스 총리와 정상회담 개최 (9.10)

-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의 핵심 협력국인 모리셔스와  
청색경제, 관광 등 분야 협력 확대 논의 -
-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 초청 -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 뉴델리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9/10 일, 현지시간) 오후 「프라빈드 쿠마르 저그노스(Pravind Kumar Jugnauth)」 모리셔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모리셔스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대통령은 안정된 민주주의와 개방경제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하고, 한국은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 지역 핵심 국가인 모리셔스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저그노스 총리는 그간 인프라, 농업, 공공 행정, 교육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사업이 추진되어 왔음을 높이 평가하고, 청색경제(blue economy, 해양경제 성장전략으로 제시되는 개념으로서,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등을 의미), 관광 등 분야에서도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이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내년 서울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하면서 저그노스 총리를 초청했습니다. 이에 저그노스 총리는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 정부의 대아프리카 외교 강화에 대한 의지를 높이 평가하면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습니다.

모리셔스는 아프리카 역내 경제 선도국이자 지정학적 중요성을 가진 인도양 도서국으로서,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 관점에서도 핵심 협력 대상입니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과 모리셔스와의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고,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끝>